



보도자료

사무총장 우 인 식 변호사
연락처 : 02-599-4434
이메일 : hanbyun@hanbyun.or.kr
홈페이지: www.hanbyun.org

자유포럼 및 한반 등 단체들, 제73주년 신의주학생의거 기념세미나 개최 - 신의주반공의거 생존 학생들 참석

일 시 : 2018. 11. 23(금). 12:00

장 소 :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2층 중식당 홀리차우(02-793-0802)

1. 오는 23일은 해방공간에서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군과 공산당의 횡포에 항거한 학생 운동인 '신의주학생의거'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5년 11월 23일 오후 2시 신의주의 6개 중학교 학생 3천 500여 명은 살인, 약탈, 강간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던 소련군과 이를 등에 업은 공산당에 맞서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공산당과 소련군이 전투기와 탱크로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바람에 24명이 목숨을 잃고 350여 명은 크게 다쳤다. 체포자는 1,000여 명에 달했으며, 200여 명이 시베리아로 끌려가 생사가 묘연하다.
2. 신의주학생의거는 2차 대전 이후 소련군 점령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공·반소 시위로서 김일성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고, 뒤이은 평양과 함흥 등 북한 지역 나아가 남한에서의 반공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가적으로 매년 11월 23일이면 기념행사가 열렸고 1956년에는 '반공 학생의 날'로 지정되어 1968~69년에는 기념우표까지 발행되었다. 그러나 1973년 각종 기념일이 통폐합되면서 교과서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잊혀지고 있다.
3.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은 외면한 채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고대하고 있고, 서울 한복판에서는 '백두청송위원회', '서울시민환영단', '꽃물결대학생실천단' 등 단체가 공공연하게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일성의 수령절대주의 3대 세습 하에 고모부와 이복형을 살해하고 무수한 사람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등 이번 14번째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의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할 반인도범이다.
4. 이에 우리는 북한주민의 반공의거의 효시를 이룬 신의주학생 의거 73주년을 맞아 진상 규명과 교과서 기술 및 기념일 지정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세계최악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계기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018. 11. 22.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역사정립연구소, SPP